



10 | Pioneers up above
김정렬 장군

16 | 기획특집
2012 런던 올림픽
스타를 만나다

46 | Air-Supply
강남 스타일,
세계를 휩쓸다

52 | Health Diary
2012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적 담띠 관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홍보대사

캡틴 구자철





- 06 경청노트 ① <R2B: 리턴 투 베이스> 리뷰
- 08 경청노트 ② AIRMANSHIP
- 10 Pioneers up above 김정렬 장군
- 12 Global AF 대테러 전쟁의 주역이 된 무인기
- 14 Leadership+ 피드백을 감사히 수용하라



- 16 기획특집 2012 런던 올림픽 스타를 만나다
- 22 현장 집중취재 뒷모습이 아름다운 공군
- 30 Photo Sketch KT-1의 하루
- 32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 34 AIR FORCE MONTHLY 2012. 09. NEWS
- 36 생각하는 그림 인생 최고의 교육

COVER STORY



표지(앞)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공군 홍보대사 구자철 선수
표지(뒤) 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신아람, 최인정 선수

CULTURE 36.5

40



- 40 Hollywood English 스트레이트 스토리
- 42 인생은 아름다워 라 체렌톨라
- 44 Art in Everyday 두근두근 쿵쿵, 내 마음이 들리니?
- 46 Air-Supply 강남 스타일, 말춤으로 세계를 휩쓸다
- 48 Preview 9월의 문화행사

OPINION

50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7월호를 읽고서
- 50 공군지 캠페인 금연! 가족과 공군과 나라를 지킨다
- 52 Health Diary 2012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 땀띠 관리
- 54 독자기고 <김훈> 읽기 - 그의 인문성에 대하여
- 56 책마를 생각하는 9월

MONTHLY MAGAZINE

VOL. 411. 2012. 09

발행일자 2012년 9월 3일(통권 제411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대위 김나청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World-Wide Vision은 쉽니다.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7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지킴이]다. 실제 공군 장병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월간 「공군」도 여러 면에서 독자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하는 그림 '바다를 감동시킨 헌신'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저까지 감동시킨 글이었습니다. 공군에서 근무하는 훌륭한 장병들을 더욱 많이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군장병 여러분 파이팅! - 경북 영양군, 박현아

02 월간 「공군」은 [섬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쌓이는 것이 나 이와 스트레스밖에 없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매달 새로운 소식으로 채워지는 월간 「공군」을 보면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영화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고,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웃기는 노래들이 세상을 휩쓴다>도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사보답지 않게 문화가 소식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서 항상 열독하고 있습니다.

- 전북 익산시, 김주현

03 월간 「공군」은 [전우]다. 끈끈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한 잡지이기 때문입니다. 윤은기 원장님이 쓰신 '내 인생관을 바꿔 놓은 공군'이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군 생활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는 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공군인들의 웰빙 건강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처음 읽어본 월간 「공군」입니다. 군대에서 발행되는 잡지여서 딱딱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 성북구, 김형남

04 월간 「공군」은 [기다림]이다. 군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매달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는 공군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병사에 대한 취재를 좀 더 보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군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좋은 정보 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남 계룡시, 고영욱

05 월간 「공군」은 [빨간마후라]다. 어릴 적 빨간마후라를 한 조종사들을 보면 그렇게 멋져보였습니다. 영화 빨간마후라의 영향 때문이겠죠? 기획특집으로 다뤄준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는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팀의 끈끈한 동료애를 다룬 호쾌한 고공액션 영화라는 확신이 듭니다. 영화 이외에도 공군을 다룬 문학작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 용인시, 정찬재

06 월간 「공군」은 [추억]이다. 고등학교 2학년때 공군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대에 계신 군악대 분들이 공연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월간 「공군」을 만날 때마다 고등학교에 다닐 적 생각이 난답니다. 추억을 새록새록 돌아나게 해주는 보물입니다.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병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코너가 있다면 좋겠네요.

- 강원 원주시, 박인숙



〈R2B : 리턴 투 베이스〉 리뷰
AIRMANSHIP

* 경청노트

김정렬 장군

* Pioneers up above

대테러 전쟁의 주역이 된 무인기

* Global AF

피드백을 감사히 수용하라

* Leadership+

Global &
Insight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계보를 잇는 대작,

R2B:리턴투베이스



현대전은 공중전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나게 하는 영화였다. 영화계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베일을 벗은 'R2B : 리턴 투 베이스'는 관객을 압도하는 스케일과 빠른 속도감, 화려한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슬아슬한 공중 곡예를 연상케하는 에어쇼 장면으로 포문을 연 영화는 한국판 '탑건'이라는 수식어답게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의 미덕에 충실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고공 액션이 돋보이는 작품이 종종 등장했지만, 국내 영화계에서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워낙 촬영 난이도가 높는데다 관객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큼 완성도 또한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R2B : 리턴 투 베이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달라진 위상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계보를 잇는 대작이라고 해도 큰 손색이 없을 듯하다.

휴전선 인근 상공에 정체 모를 전투기가 출현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공격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영화의 설정은 최근 몇년간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덧입혔다.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을 비롯해 한강, 원효대교, 테헤란로 등 도심을 배경으로 두 대의 전투기가 빌딩 숲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박감이 흘렀다. 드넓은 창공을 배경으로 F-15K와 T-50 등 첨단 전투기의 역동적인 비행 장면은 엄청난 속도감과 함께 규모감이 느껴졌다.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으로 7,500m~13,000m 상공에서 실제로 촬영한 전투기 비행 장면은 다른 국내 영화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장면이다. 지상에서보다 몇 배나 어려운 항공 촬영이지만, 제작진은 고공 액션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CG)의 의존도를 최소화했다.

마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투기를 촬영하기 위해 '인셉션', '다크나이트', '매트릭스'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참여해 감각적인 영상을 구현했던 윌프레더팀이 투입돼 생생한 공군 전투기의 움직임을 담아냈고, 이렇게 촬영된 고공 액션 장면은 약 10개월 동안의 후반 작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보였다. 'R2B'는 'Return to Base'의 줄임말로 '기지귀환'을 뜻하는 군사 용어.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7분간의 비공식 작전명을 뜻한다. 영화 속 배경인 21전투비행단은 저마다 다른 개성의 파일럿들이 뿔뿔 뿜친 곳으로 그려진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전투 조종사 정태훈(정지훈)이 에어쇼에서 재미삼아 위험한 비행 기술을 구사했다가 징계를 당해 책임감이 강한 박대서(김성수)가 편대장으로 있는 21전투비행단으로 이적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태훈은 동기생인 여성 전투기 조종사 오유진(이하나), 비행 훈련을 할 때마다 기절하는 신참 조종사 지석현(이종석)과 함께 새로운 부대에서 적응해 나간다. 하지만 비행에 있어서만큼은 늘 엄격한 태도로 규칙과 법도를 중요시하는 원칙주의자인 편대장 이철희(유준상)와 태훈은 사사건건 부딪치게 된다. 그러던 중 이들 앞에 거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날 귀순을 가장한 북한군 전투기 한 대가 서울까지 내려와 21전투비행단과 예상치 못한 교전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지석현(이종석)이 비상탈출을 시도하다 북한 지역에 불시착한다.

이어 북한 군부 내 쿠데타가 발발해 쿠데타 세력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시도하자 주한미군이 이를 막기 위해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군을 이용해 미사일을 막는 비공식 작전인 '리턴 투 베이스'를 시도한다.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의 입대 전 마지막 영화로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이처럼 하늘에 인생을 건 21전투비행단 소속 파일

럿들의 임무와 사랑 이야기를 버무렸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오르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애환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진다. 주연 배우 이하나도 “아무리 반복이 돼도 면역되지 않는 공포를 안고 비행기에 오르는 조종사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충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대단해 보였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중력 가속도 내성훈련(G-test), 비상탈출훈련, 저압실훈련 등 전투기 조종사들의 필수훈련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준상, 이하나 등 일부 배우들은 기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수영에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김성수는 “조종사 역할에 대한 준비를 오랫동안 강하게 했더니 모형 조종석 안에서 연기를 할 때도 그 긴장감이 그대로 나와 역할에 더 빨리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가속도 내성훈련에서 당일 6G와 9G를 모두 통과하며 열정적으로 연기한 정지훈은 자신감이 넘치고 유독유독한 성격의 소유자인 태훈 역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태훈의 애정 공세를 받는 정비사 유세영 역의 신세경은 남모를 상처로 전투기에 애착을 갖는 캐릭터를 진중하게 표현했다. 조종사 역할의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이종석 등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 특히 오달수, 정경호 등 감칠맛 나는 조연들이 차질 딱딱해질 수 있는 극에 활력소를 불어넣으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던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로서 새 장을 열었다는 점은 영화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크다. 특히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대한민국의 하늘이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당분간은 지나가는 전투기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 같다. **AF**





AIRMANSHIP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로서, 지휘관으로서 생활하는 동안 리더십,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등과 함께 수없이 듣고 또 강조했던 에어맨십. 그러나 막상 에어맨십의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려면 머뭇거리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글은 그동안 제가 40년간 공군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좀 더 뜻이 명확한 에어맨십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역 에어맨들에게는 에어맨십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한 과거 우리를 에어맨으로 키워주셨던 원로 선배 분들께도 도리를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글은 에어맨십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에어맨십에 포함되어야 할 일곱 가지의 덕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에어맨십이 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 구체화된 개념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어표현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약된 영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에어맨십이란?

“에어맨십이란 해양항법에서의 시맨십(Seamanship)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중항법에 적용되는 기량과 지식이며 항공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광의의 바람직한 행동과 능력이다.”

- 위키백과 -

“Airmanship is skill and knowledge applied to aerial navigation, similar to seamanship in maritime navigation and covers a broad range of desirable behaviors and abilities in an aviator.”

- Wikipedia -

에어맨십에 포함되어야 할 7가지의 덕목

1 PROFESSIONALISM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학술적인 전문성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종사만큼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해야 하는 직종도 드물 것이다. 항공기의 정상 및 비상절차, 그리고 기타 성능 및 특성을 모르면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

문이다. 또한 평소에 비행기량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과 지휘능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직책과 보직이 상향됨에 따라 그 자리에 맞는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평소에 선배들의 업무수행을 보면서 스스로 익혀가야 한다.

2 RESPONSIBILITY / SENSE OF DUTY

책임감과 사명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적지에서 지상포와 대공포의 위협상황 하에서도 나에게 부여된 전투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부대원으로서 부대와 공군에 대한 책임감, 전투조종사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의감과 주인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감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주어진 임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매사에 나 자신은 제3자가 아닌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3 MISSION & SAFETY ORIENTED MINDSET

매사에 임무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고가의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높은 안전의식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특히, 비행 시에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부대나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합, 조화가 없는 안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4 "DO IT BETTER" ATTITUDE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정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매사에 조금씩만 잘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큰 긴장감 없이 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BEST" 위에 "BETTER"를 쓴 이유도 최선을 다한 후에도 만족하며 멈추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5 ESPRIT DE CORPS (= Spirit of the Corps)

단체정신, 연대감을 나타내는 말로 어떤 조직에서 특히 군에서의 일체감은 개인이 낼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보다는 조직, 단체, 군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동료들과의 경쟁심보다는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될 수 있는 "Win-Win" 정신의 "Positive sum" 개념을 명심해야 한다.

6 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에서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로서 과거 1, 2차 세계대전시 영국의 귀족들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출신들이 누구보다 먼저 자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바로 그 정신이다. 이러한 자기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조국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국민정신이라고 생각된다.

7 LGI(= LEADERSHIP + GENTLEMANSHIP + INTEGRITY)

에어맨십은 모름지기 리더십과 젠틸맨십을 추구하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리더십이 부족한 공중지휘관은 급변하는 공중상황에서 본인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신사도를 지킴으로써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게 되며, 내가 속해있는 조직이나 부대의 위상을 함께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직책에 있건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자세 없이는 조직 내에서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에어맨십에 대해서 그 정의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7가지의 덕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어맨으로서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에어맨십의 기본 개념을 늘 숙지하며 각자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F**

『항공의 경종』을 통해 한국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 항공 선각자

서암 曙巖 김정렬 金貞烈

장군

(1917. 9. 29. ~ 1992. 9. 7.)



김정렬 장군은 1917년, 서울의 장군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성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194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일본 육군비행학교를 거쳐 비행중대장 및 비행전대장으로 태평양전쟁 동남아전역에 참전하였고, 1946년 5월 1,100여 명의 징병징용자들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다. 1948년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7인 회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1949년 한국 공군의 초대 참모총장이 되었다. 1950년 5월 준장으로, 10월에 다시 소장으로 승진하였고, 1952년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되었다. 1953년 중장 승진 후 대통령 미국방문을 수행하였고 1954년 12월 제3대 공군참모총장에 재임명되었다. 1957년 예편할 때까지 한국군 육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였다. 예편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960년 4·19혁명으로 물러났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민주공화당 초대 의장이 되었으며, 그해에 주미대사로 부임하여 약 1년간 재직하였다. 1966년 반공연맹 이사장, 1967년 민주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1971년부터는 민간 분야에서 삼성물산 사장, 경제동우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우개발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직에 복귀하였으며, 1987년부터 1988년 초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1989년부터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92년 9월 7일 75세로 역사적 격동기의 그 화려했던 생을 마감하였다.

김정렬 장군이 6·25 발발 1년 전에 쓴 『항공의 경종』은 한국전쟁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략가로서의 선각자적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장군은 “국가를 보전하려면 가상적국에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국방력을 필요로 한다.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를 유일한 요행으로 삼지 말고 자주적으로 국방군 편성방침을 확립하여 예산을 최대한으로 유효하게 운용해야 한다. 이는 삼천만 백의민족이 절실히





▲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김정렬 장군



▲ 6·25 당시 헤스 중령과 환담 중인 김정렬 장군

경험한 ‘국가 없이는 민족도 없다.’는 비장한 국민의 결의일 것이다.”라고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장군은 “가상적국은 누구인가? 현재 우리에게 제일 가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적이 아닌 적, 북조선인민공화국이다. 이북의 실권을 가진 자는 소련의 괴뢰정권인 만큼 제일의 가상적국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항공력에 관하여 장군은 “신의주에 소련제 전투기 10대, 원산에 일제 전투기 27대, 평양에 연습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병력 약 2천 명, 출전가능 항공기 20대로 추정되며, 연료 및 탄약 등은 소련의 원조를 받고 있다.”고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장군은 “해방 후 3년 반 이상 여러 선배들은 갖은 악조건 하에서도 육군과 해군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여하한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삼발이는 다리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서지 못 하듯이 육군과 해군만 가지고 국방력 전체에 자기만족이나 공상적 자기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상태, 민생문제를 빙자하여 항공력을 등한시하거나 태만해서는 삼발이의 다리 하나를 상실함과 흡사한 과실을 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국방지도부에 만연해 있는 항공력 경시 사상을 경고하면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당시만 해도 국방지도부의 인식에는 육군과 해군만 있지 항공력에 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당시 항공부대의 총예산이 1개 보병대대분에 불과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장군은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 공군독립을 주창했던 항공전략가들이 당대에는 미친 반역자 취급을 받았지만 훗날 국민들로부터 국방의 선각자로 추앙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공군의 독립은 마치 무기의 신발명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하였다. 장군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은 인덕이나 평화애호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있지만, 실상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치르느라 ‘인자(仁慈)의 검’을 사용해야 했음을 지적하면서,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한민국 인사들은 국방의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공군 정비에 관한 정당한 이해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군은 당시 항공력 육성에 부정적인 일부 국방지도급 인사들의 “‘연락기와 수송기를 교묘하게 운용하여 미·소 양국을 자극하지 않고 국방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주장은 전술의 문외한들이 하는 말이니 문답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였다. 이처럼 장군은 다가올 6·25전쟁에 관하여 적국, 적의 항공력 실태, 적의 전략개념, 전쟁의 전개 양상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나아가 우리의 대비태세, 대응전략, 그리고 미래 효과적인 국가방위를 위한 전략적 대안 등을 현실감 있게 제시하였다.

장군의 이 같은 전문성 있고 원시안적인 항공전략사상은 신생독립 대한민국 공군의 육성과 창군 1년도 못 되어 맞이한 6·25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고, 나아가 오늘날 블랙이글처럼 불과 반세기만에 국제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공군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 장군은 오랜 군 및 공직생활로 다수의 무공훈장, 수교 훈장 광화장,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미국의 리전오브메리트 등을 수여받았다. **AF**





I 테러와의 전쟁 ②

대테러 전쟁의 주역이 된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전쟁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도 매우 드물 것이다.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했다. 눈부시게 발전한 각종 첨단기술은, 오늘날 항공전의 패러다임(Paradigm)마저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9·11 테러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무인기가 사용되면서, 항공전을 컴퓨터 게임처럼 변화시키고 있다.

표적 공습의 시작

01



2002년 11월 3일 예멘 내 알 카에다 최고 요원인 알 하르티는, 검정색 일제 도요타 랜드 크루저

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아부 알리로도 알려진 알 하르티는 오사마 빈 라덴의 경호원을 지냈고, 2000년 10월 일어난 미 구축함 콜호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였다. 거침없이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졌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알 하르티와 탑승자들은 비명횡사하고 만다. 이 작전을 수행한 것은 미 중앙정보국이 운용하던 “MQ-1 프레데터(Predator) 무인기”였다. 알 하르티의 이동 궤적을 입수한 미 중앙정보국은 프레데터 무인기를 예멘 상공에 전격 투입시켰다. 프레데터 무인기는 예멘 동부의 마리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상공을 선회하며, 차량들을 정찰해 지상 통제소에 보냈다. 지상 통제소의 미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목표 차량을 확인하고,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여 알 하르티를 비롯한 알 카에다 요원들을 정확하게 사살했다.

대테러전의 신무기

02



알 하르티를 공격한 것은 미국이었지만, 현장에는 단 한 명의 미군이나 미 정 부요원도 없었다. 작

전의 시작과 끝은 공습 현장에서 수천km 떨어진 지상 통제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무인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프레데터 무인기는 대테러 전쟁의 신무기로 언론에 등장한다. 현대전에서 무인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선보인 것은 1982년 레바논 전쟁 때였다. 당시 이스라엘 군의 스카우트와 메스티프 무인기는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지상 통제소에 송신하여 이스라엘 군 작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스라엘 무인기의 활약에 세계 각국의 관심도 커져갔고, 미국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약탈자라는 별칭을 가진 프레데터

03



약탈자라는 별칭을 가진 프레데터 무인기는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이 정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 지난 199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사가 제작한 프레데터 무인기는 1994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다. 시험평가 기간 중이던 1995년 4월, 프레데터 무인기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투입되어 최초의 정찰 작전을 벌였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한 프레데터 무인기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찰능력을 보여 주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정 목표물에 대한 집중 감시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위성 데이터 링크와 통제체계를 사용해, 미 본토에서도 실시간으로 정찰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된 프레데터 무인기는, 9·11 테러 이전부터 빈 라덴을 감시하기 위해 아프간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벌인다. 당시 빈 라덴은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빈 라덴 사살을 위해 개발된 MQ-1 프레데터

04



아프간에 숨어 있던 빈 라덴은 미 중앙정보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프레데터 무인기는 끈질기게 빈 라덴을 쫓았다. 결국 프레데터 무인기는 빈 라덴을 찾아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프레데터 무인기는 공격능력이 없는 정찰기에 불과했다. 미 중앙정보국의 지원 하에 미 공군은 프레데터에 무장을 장착하기로 결정한다.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 주익이 강화된 신형 프레데터 무인기가 생산되었다. 또한 프레데터 무인기의 무장으로 선택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레이저 조사장치가 포함된 신형 전자광학 및 적외선 감지기가 장착되었다. 2001년 2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프레데터 무인기는 성공적으로 무장 발사 시험을 마쳤고, MQ-1이라는 제식명칭을 부여받는다. 참고로 M은 다목적(Miscellaneous)을, Q는 무인기(Radio Controlled Drone)를 의미한다.

알 카에다 잡는 공중의 암살자

05



MQ-1 프레데터 무인기는 9·11 테러 직후인 9월 16일부터 아프간 상공을 누비며, 탈레반 잔당

이나 알 카에다 요원 색출 및 사살을 위해 적극 활용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카불 인근에서 빈 라덴의 군사 담당 최고위 간부인 모하메드 아테프를 사살했다. 또한 빈 라덴 등 알 카에다 수뇌부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되자, 몇몇 프레데터 무인기들은 파키스탄 국경을 월경해 집중적인 공격을 펼쳤다. 특히 미 중앙정보부 소속의 프레데터 무인기들은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의 협의 하에 파키스탄의 삼시 공군기지에서 비밀리에 운용되기도 했다. 2005년 12월에는 알 카에다 서열 3위이자, 작전 책임자였던 아부 함자 라비아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프레데터 무인기의 공격에 사망했다.

눈에 띄게 증가한 무인기 공습

06



2008년 11월에는 알 카에다의 선전 책임자인 이집트 출신의 지하드 알 마스리도 프레데터 무인기

의 공격에 운명을 달리했다. 마스리는 알 카에다의 비디오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했으며, 2006년에는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이은 제2인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와 함께 나타나 자신이 이끄는 무장그룹이 알 카에다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프레데터 무인기의 공습이 알 카에다 제거에 효과적이지, 미국은 2008년을 기점으로 파키스탄 북서부에 대한 공습 횟수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부시 전 미 행정부의 경우 총 50여 회의 프레데터 무인기 공습을 실시했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280여 회의 프레데터 무인기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 부시 전 미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7년 10월부터는 프레데터 무인기보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고 무장 장착 능력이 확대된, MQ-9 리퍼(Reaper) 무인기가 대테러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비난의 대상이 된 무인기

07



알 카에다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는데 무인기는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지만, 공습이 늘어날수록

오쪽 문제와 민간인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파키스탄과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조사단체인 언론조사국은 최근 조사를 통해 2004년 이후 미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최소 385명, 최대 775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언론조사국은 희생자 중 어린이가 160명 이상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정부는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 중앙정보부는 "2010년 5월 이후 1년 동안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국의 대테러 책임자 존 브레넌도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맺으며...

08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장차전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인식하에, 전 세계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위험 임무를 인명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고, 피로와 공포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무인기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든,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되는 재래식 전쟁이든 무인기가 전쟁에서 맡는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AF**



요즘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언론의 정치인 비판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너무 예민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CEO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동료와 상사, 부하직원들이 각각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피드백, 즉 다면평가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어떤 CEO가 부하직원이 자신에 대해 평가를 내린 항목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도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경영자들 중에는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반응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지만, 반응적인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즉 다른 사람과 연관된 영역, 혹은 날씨나 과거의 일과 같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쏟아 붓는다.

비가 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산을 준비하거나 미리 빨래를 걷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LEADERSHIP

피드백을 감사히 수용하라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렇게 나쁜 점수를 준 거야? 꼭 찾아내서 추궁을 하고야 말겠어!' 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자신이 그런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심지어 '뭐 이런 평가가 있느냐?'면서 나에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었다. 저녁 내내 화를 내고 고민하던 그는 교육 과정에서 '문제는 부하직원이 아닌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결국 피드백을 해준 직원들을 불러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겠으니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사장의 솔직한 각오와 실천에 직원들은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기업 문화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혹은 내가 무엇을 안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한다.

운동선수는 코치 얘기를 잘 들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무대 위에 선 배우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하려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개선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우승을 놓치고 나서 후회해야 소용없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의 리더십에는 분명한 결함이 있다. 그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 혹은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문

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당장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속하지만, 이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는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단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주도적인 사람은 상황에 맞게 돛의 방향을 조정하는데 비해, 반응적인 사람은 노력을 집중하는 대신에 바람의 방향을 원망한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주도적인 사람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인 영업 기법을 개발하는 반면, 반응적인 사람은 나빠진 경제 상황을 탓하는 데 힘을 쏟는다.

회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부하들이 상사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떤 상사는 자기반성을 하고 신뢰받는 상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어떤 상사는 부하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쓴다. 전자는 주도적인 사람이고, 후자는 반응적인 사람이다. 과거의 나 또한 가족이나 직원 등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인 가정 경영과 회사 경영이 가능해졌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남이 아닌 자신부터 점검하고 주도적인 행동을 넓혀 나가면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AF**



2012 런던 올림픽 스타를 만나다
* 기획특집

뒷모습이 아름다운 공군
* 현장 집중취재

KT-1의 하루
* Photo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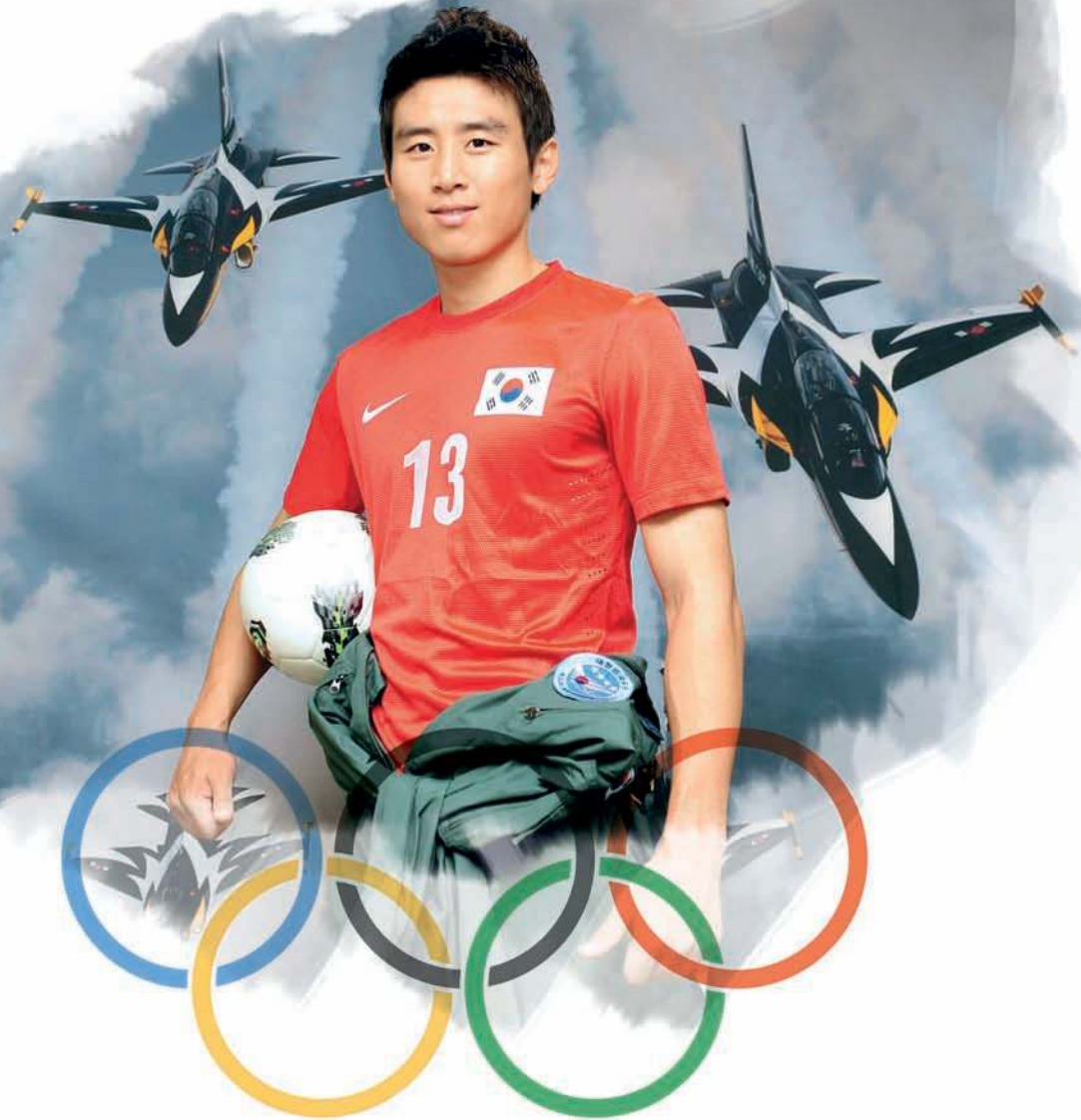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09. NEWS
* Air Force Monthly

인생 최고의 교육
* 생각하는 그림

공군IN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한·일전**
결정적 싸이클의 **주인공!**



2012 런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공군 홍보대사 구자철 선수를 만나다!

전 국민을 밤잠 설치게 했던 2012 런던 올림픽.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펼치는 모든 경기가 명불허전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고 흥분되었던 경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펼쳐진 축구 한·일전이 아니었을까요? 2012 런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주장이자 새롭게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구자철 선수를 월간 「공군」이 만나봤습니다.

Interview

편집실 : 먼저 조금 늦었지만,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구자철 선수 : 감사합니다. 공군 장병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실 : 빼기골을 넣고 했던 만세삼창 세러머니가 2012 올림픽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혔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까?

구자철 선수 : 경기 시작 전부터 100% 골을 넣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의 승리를 견인하는 중요한 골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만세삼창은 선수단이 준비한 세러머니였습니다.

편집실 : 이번에 새로운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구자철 선수 : 저에게도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공군에서 근무하셔서 어린시절 비행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공군은 저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가족 같은 대상입니다.

편집실 : 아버님은 어떤 임무를 하셨나요?

구자철 선수 : 아버지께서는 일선 전투비행단의 KF-16 정비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공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저도 공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집실 : 조종복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구자철 선수 :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조종사들을 보면서 동경했었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편집실 :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버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구자철 선수 : 너무 기뻐하셨죠. 비록 저를 통해서이지만 공군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행복해 하셨습니다.

편집실 : 공군이 구자철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한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구자철 선수 : 제가 경기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모습과 전시공군의 역할간에 유사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적진을 뒤흔들면서 결정적

인 한 방을 날리는 것이 저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편집실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공군 홍보대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자철 선수 : 공군 홍보대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군을 홍보하는 일을 돕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12월 정도에 시즌이 끝나면 귀국해서 전투기 탑승 체험도 해보고, 공군이 후원하는 장애우 축구단의 친선경기에서도 뛸 생각입니다.

편집실 : 월간 「공군」이 발행되는 시점에는 이미 분데스리가가 개막한 이후 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자철 선수 : 올림픽 활약 덕분인지 국민들의 기대와 팀에서의 기대가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구단이 원하는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와 팀(아우크스부르크)의 1부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실 : 독일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자철 선수 : 물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다른 리그의 큰 클럽에서 뛰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실 :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자철 선수 :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군 장병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저도 공군홍보대사로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멈춰버린 1초의 아픔 딛고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 은메달 거머쥔 신아람, 최인정 선수

여자 펜싱 에페 개인전 결승 진출을 놓친 '1초의 검객' 신아람 선수. 전 국민이 밤을 지새우며 함께 화내고 아파했던 그날의 오심 사건. 신아람 선수는 오심사건의 아픔을 딛고 에페 단체전에서 맹활약하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HOT했던 미녀검객 신아람 선수와 단체전에서 함께 은메달을 따낸 최인정 선수를 계룡시 민체육관에서 만나봤습니다.



Interview



편집실 : 공군지 독자들에게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아람 · 최인정 선수 : 안녕하세요? 공군지 독자 여러분, 여자 펜싱 에페 국가대표 신아람, 최인정입니다.

편집실 : 먼저 런던 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신아람 선수 :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는 여기저기 방송 출연 요청이 많아서 제대로 쉬지는 못했습니다.

최인정 선수 :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감동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실 : 실제로 보니까 두 분 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최인정 선수 : 어제도 얘기 들었습니다. (웃음)

편집실 : 혹시 공군과의 인연이 있으신가요?

신아람 · 최인정 선수 : 공군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주변에 공군에 간 친구들도 거의 없네요. ^^

편집실 : 공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최인정 선수 :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행기하고 파일럿 아닐까요? 군인 중에서는 공군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편집실 : 최근 개봉한 <R2B : 리턴 투 베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최인정 선수 : 올림픽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정지훈 씨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설 수 있으니까 꼭 볼 계획입니다.

편집실 : 신아람 선수 1초 사건이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아람 선수 :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단체전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실 : 특별한 금메달을 받게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신아람 선수 :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메달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실 :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당시 심정은 어땠나요?

신아람 선수 :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편집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 주었습니다.

신아람 선수 :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단체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집실 : 1초 패러디가 유행입니다. 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신아람 선수 : 레고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으로 볼 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





편집실 : 최인정 선수는 팀의막 내임에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셨는데, 4강전에서 45점의 득점 중에 무려 21점이나 올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인정 선수 : 미국팀과는 일전에 단체전을 한번 겨뤘었는데 졌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단체전은 모두가 잘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편집실 : 최인정 선수는 돌고래 소리와 몸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인정 선수 : 제가 경기를 할 때 소리가 돌고래 소리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원래 목소리 자체가 돌고래 소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몸매는, (웃음) 루마니아와의 8강전 때 제 경기를 마치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도복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썩스럽네요.

편집실 : 펜싱 선수들은 유독 한점 한점에 감정표현이 심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인정 선수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릴 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자신한테 좀 더 힘을 내라는 의미로 내기도 하고, 물론 상대방을 기죽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편집실 : 최인정 선수도 펜싱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텐데요.

최인정 선수 : 아파도 운동해야 하고 자고 싶어도 운동해야 할 때가 힘들어요.

편집실 : 이겨내는 방법이 있나요?

최인정 선수 : 메달을 따고 싶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더 노력하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편집실 : 관심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신아람 선수 : 한국에 돌아와 보니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내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Fencing



최인정 선수 :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할 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편집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신아람 선수 : (지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선수로서의 본분에 맞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국가대표로서 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습니다. 결국 정상에 서지는 못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제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세계 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후에 국가대표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정 선수 : 물론 목표는 다음 올림픽입니다. 당장 있을 국내 시합과 내년 초의 외국 시합에 집중하다 보면 아시안 게임도 지나고, 다음 올림픽이 돌아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편집실 : 공군 장병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아람, 최인정 선수 :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시구요,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마치고 전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레터도 환영이구요!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대동아파트 101동 502호 계룡시청 여자펜싱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AF**



‘공군’만의
특별한 전역 프로그램!

ASSA

(Airman Self-reengineering & Society Aiod)

캠프 탄생!

우리의 머릿속에 전역 전 병장들은 생활관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전역할 날만 기다리는 존재들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이제 공군의 말년 병장들은 다르다. 전역 전의 2주를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병장 전역 전 교육 ASSA 캠프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첫 캠프부터 전역 전 병장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ASSA 캠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짧은 머리가 연예인 스타일로 바뀌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

공군 3방공포병여단에서는 ASSA 캠프의 일환으로 MBC 아카데미 의상·헤어 스타일·메이크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초청해 멋진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법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강사 손길이 몇 번 닿자 짧은 머리도 근사한 모양으로 바뀌었다. 병사들은 탄성을 금치 못한다. 이어진 의류스타일링. 동기들이 체형과 피부색에 맞는 코디로 환골탈태하자 너도나도 실습을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전역 후 복학해야 하는 병사들이 대부분이라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강연내용만 제대로 따라 한다면 복학생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강남 스타일의 멋진 '오빠'가 될 것 같다. 영원한 공군인 양성과 국가관·안보관·역사관 확립 이외에도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시킨 ASSA 캠프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다시 태어나도 공군!



ASSA 캠프는 '영원한 공군인', '국가관·안보관·역사관 확립', '사회생활준비'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영원한 공군인'은 공군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항상 공군을 응원할 수 있는 동호인으로 거듭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동기간의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매 기수마다 동기회 임원을 뽑고 다함께 인터넷 카페와 전역기념 DVD를 제작한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동기회다 보니, 의욕적이고 생동감이 넘쳤다. 병사들이 이렇게 군문을 떠난다면, 공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예상외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안보관 교육

공군은 전역병들이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ASSA 캠프에 안보관 교육을 포함했다. 다양한 강사진이 종북세력 교육과 안보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태의연하고 딱딱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전역병들의 반응은 좋았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전투의지만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역사적 통찰력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외부강사진의 안보교육을 통해 사회로 나가는 병사들이 국가관과 안보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다.



병사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는 시간



마냥 좋을 것만 같은 전역이지만, 2년 만에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전역 후에 인생의 방향을 잡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공군은 사회생활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들과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고, 고민해 주고 있었다. 성격유형 및 적성검사, 취업지원교육을 연계한 리더십 교육은 청년들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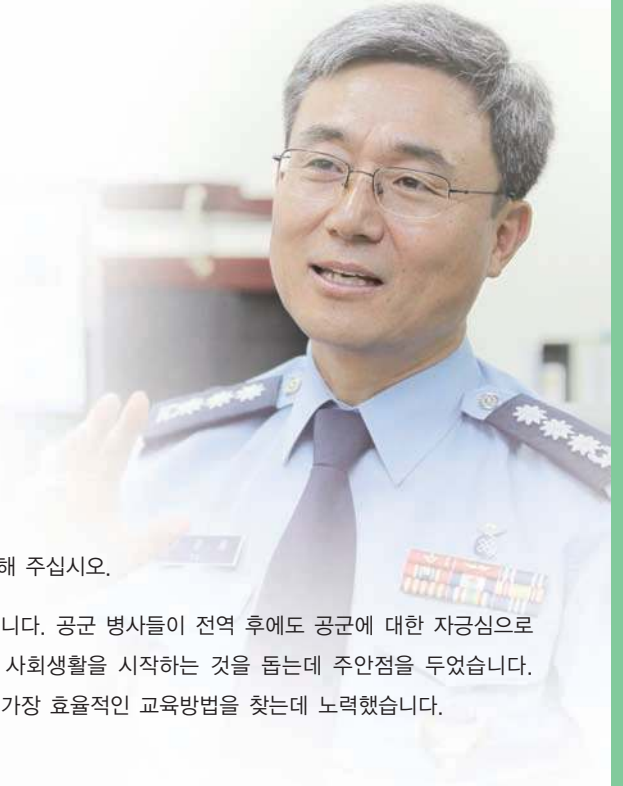
상병진급캠프에 이은 名品 프로그램의 탄생

공군이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병진급캠프'는 공군만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공군 병사교육체계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ASSA 캠프를 통해 공군의 병사교육프로그램은 더욱 탄실한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 상병진급캠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새로운 ASSA를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겪어본 ASSA 캠프는 상병진급캠프에 버금갈 만큼 훌륭한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었고, 이제 공군의 병사교육 프로그램은 그 어디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



ASSA 캠프 탄생의 주역

공군본부 인사근무복지처장 유준종 대령



Q 편집실 : 공군에 ASSA 캠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캠프 신설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유준종 대령 : 기존의 전역 전 교육을 업그레이드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군 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공군에 대한 자긍심으로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모범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캠프가 2주간에 걸쳐서 운영되는 만큼, 실무자 회의와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는데 노력했습니다.

국가관·안보관 확립, 공군사랑 및 동기생애 함양에 중점

Q 편집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유준종 대령 :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가관·안보관 확립과 공군사랑 및 동기생애 함양이었습니다. 때문에 안보체험과 전문 외래강사 강연, 동기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배치했습니다.

Q 편집실 : 새로운 전역 전 프로그램이 생김으로써 공군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유준종 대령 :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군문을 떠나는 병사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역 전의 체계적인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전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교육이냐?'며 입 내밀던 병사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

Q 편집실 : 첫 캠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역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A 유준종 대령 : ASSA 캠프가 처음 시행되면서, 병사들은 대부분 불만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만족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동기생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2주를 보낸다는 자체를 좋아하는 병사들이 많았고, 내실 있게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했습니다.

Q 편집실 : 병사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 유준종 대령 : 아무래도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사회 진출 준비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어서 안보강의, 산업현장 답사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Q 편집실 : 향후 ASSA 캠프의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A 유준종 대령 : 향후 ASSA 캠프는 현재 프로그램보다 외래(전문)강사 강연을 더욱 많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역병사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AF**



ASSA 캠프 입과 전역병 4명에게 듣는 '공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ASSA 캠프는 공군 병장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ASSA 캠프가 진행되는 15혼성비행단을 찾았습니다. 2년여의 군생활을 ASSA 캠프를 통해 마무리하는 공군 병장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곧 전역하는 평범한 병사들로부터 공군 병영문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연도 얻어 보기로 했습니다. ASSA 캠프에 대한 평가와 전역병이기에 말할 수 있는 공군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人 4色, 서로 다르게 살아온 군생활

편집실 : 안녕하세요? 월간 「공군」입니다.

먼저, ASSA 캠프 입소와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실 코너는 ASSA 캠프 취재와 함께 특별히 마련된 「탄산 Talk」인데요, 평범한 병사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통해 공군 병영문화를 여러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탄산음료 한 모금씩 마시고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네 분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영철 병장, 694기, 22세 : 안녕하세요? 30단 3경보대 대공방어대 안영철 병장입니다. 산에서만 근무하다가 전역이 다돼서야 비행단에 와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신기합니다.

원동혁 병장, 693기, 23세 : 재경근무지원단 시설중대 원동혁 병장입니다. 2년 동안 시설중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방은배 병장, 693기, 22세 : 3여단 8198부대 방은배 병장입니다. 대대 작전계에서 통신망 점검 및 수리복구 업무를 했습니다.

채희수 병장, 693기, 25세 : 15비 정훈공보실 채희수 병장입니다. 저는 정훈장교들의 업무를 도와 상병진급캠프, 문화공연, 태권도 지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부대가 최고!

편집실 : 공군에는 여러 부대가 있고, 부대별로 생활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동기가긴 하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인원 중에 15비 인원을 한 명만 선발한 것은 여러 부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에서 만났는데, 자기 부대 자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영철 병장 :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랄 특기로 근무했습니다. 공군 병사 중에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드물겁니다. 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복지여건은 비행단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대 자체가 살아 있는 안보교육 현장입니다.

편집실 : 공군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에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번 가보고 싶은 부대네요.

원동혁 병장 :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재경근무지원단입니다. 전투부대가 완벽하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시설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재경단이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집실 : 저도 재경단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오해를 받았나요?

원동혁 병장 : 부대 안에 수족관이 있느냐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장 왜곡된 이야기는 재경단 병사들은 일과시간에 서울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행단이나 포대, 사이트에 있는 전우들도 고생하는 건 알지만, 재경단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은배 병장 : 방공포병 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일하는 부대였습니다. 일·이병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말년 병장이 되어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같이 고생하는 것이라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채희수 병장 : 사실 군대에 오기 전에는 태권도만 했었습니다. 15비 정훈공보실에서 문화업무, 공보업무, 정훈교육업무 등을 도왔는데, 새로운 일들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했는데, 밖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만족했던 ASSA 캠프!

편집실 : 먼저, 아직 수료하지는 않았지만, ASSA 캠프 입과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영철 병장 : 입과하기 전에는 큰 기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사회 에티켓 교육, 면접 대비 교육 등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동혁 병장 : 사실 저는 파견을 와서 교육받는 케이스라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부담되었는데, 그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중복세력 강의를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역 전에 안보관을 확고히 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은배 병장 : 저 같은 경우는 포대 동기들과 함께 파견을 오게된 점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말년병장이라고 해서 업무나 근무를 열외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아요? 교육 덕분에 2주간 열외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 물론 교육내용도 알차서 좋았습니다.

채희수 병장 : 여기서 저만 15비 소속인데, 저는 비행단 동기들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병진급캠프(15비는 부대 자체적으로 일병진급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상병진급캠프, ASSA 캠프로 이어지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동기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편집실 : 동기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어땠나요?

안영철 병장 : 분임조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카페를 만들고 함께 사진 CD를 제작하는 과정도 좋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ASSA 캠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편집실 : 혹시 보완해야 할 점은 없겠습니까?

채희수 병장 : 인원이 많아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동혁 병장 : 파견을 와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행단 전우들과는 생활을 같이 못 해봐서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여건은 쉽지 않겠지만, 같은 특기들끼리 모여서 캠프를 진행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情이 살아 있는 공군문화가 좋았다!

편집실 : 이제 병영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A부터 Z까지 하려면 여러분 전역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년 동안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와 꼭 바뀌어야 하겠다는 문화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영철 병장 : 뭐 다른 부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발전을 위해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군복무 하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뒀는데, 교재와 시간, 면학분위기, 시험 당일 지원 등 모든 부문이 완벽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기생활관입니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기생활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후임간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악폐습이 아닌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활관 후임이 진급하면 모자도 사주고 회식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군대가 작은 사회를 배워가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후임들은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동혁 병장 : 좋았던 것은 선후임간의 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부대에 갔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존경스러운 선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후임도 생겼습니다.

편집실 : 공군·해군·해병대는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공군병사들은 전역 후에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SSA 캠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동혁 병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대부분의 병사가 전투원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유가 쉬운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은 기술군이 아니냐요? 공군은 각 부서/대대로 본인의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결속력을 갖추는 기본 단위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전역한 병사들과 많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군?

편집실 : 공군 병장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전역하는 병사에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입대하라면 공군을 오겠습니까?

안영철 병장 : 무조건 공군입니다. 물론 외박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전히 공군은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군생활이었습니다.

편집실 : 안 병장은 여기 네 명 중에 가장 격오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영철 병장 : 평범한 학생으로만 살다가 정말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원동혁 병장 : 저도 공군입니다. 타 군에 비해 유연한 조직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군은 여전히 신사 이미지입니다. 멋진 신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병사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하는 만큼 인정받는 분위기도 좋습니다.

방은배 병장 : 저는 육군으로 가고 싶습니다. 공군을 선택한 것은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휴가가 많은 공군을 가라는 조언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집실 : 여자친구와 헤어졌나요?

방은배 병장 : 일병 때 헤어졌습니다.

편집실 :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채희수 병장 : 저는 반반입니다. 공군을 다시 오고 싶지만, 또 기회가 생긴다면(물론 그런 기회는 없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나 특전사처럼 특별한 군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공군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편집실 : 공군에 다시 오고 싶다는 사람이 오기 싫다는 사람보다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공군에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안영철 병장 :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와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배 병장 : 공군에 오는 병사들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우수인력들이 많습니다. 전문성 있고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해병대 하면 강하고 전투적인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공군도 병사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동혁 병장 : 군생활은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 힘듭니다. 병사라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자존감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공군 병사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중사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일할 때마다 신뢰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고, 선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역병이 후배 병사들에게

편집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안영철 병장 : 열심히 한 만큼 전역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공군지 보고 힘내서 군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방은배 병장 : 재입대를 하게 된다면 육군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공군에서 복무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군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원동혁 병장 :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십시오! **AF**

KT-1



학생조종사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항공기 KT-1 국산 기본훈련기와 함께한 하루

공군제3훈련비행단은 공군 유일의 훈련비행단입니다. 더불어 공군조종사가 되려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정예 보라매의 산실이자 학생조종사들이 비상을 꿈꾸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청년조종사들의 꿈과 열정이 함께하기에 더욱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랑하는 3훈련비행단. 이곳에 학생조종사들의 꿈을 이뤄 줄 KT-1이 있습니다. 2000년 새롭게 사천기지에 자리한 KT-1은 비행훈련체계에 최초로 도입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조종사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기쁨과 환희, 때론 아쉬움과 절망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KT-1. KT-1의 임무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AF**



02



03



- 01 이륙한 KT-1편대, 쾌청한 하늘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 02 이륙을 앞둔 KT-1의 정대 모습.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 03 학생조종사가 최고의 비행을 다짐하며 정비사와 수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정대한 KT-1.



학생조종사들과 하루 일과를 마친 KT-1.
석양에 비친 항공기 모습이 고혹적이다.



포토프레임@AF

12-2차 고등비행 수료식

참모총장은 8월 7일 1전비를 방문해 12-2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주관하고 새내기 조종사들을 비롯한 교관 및 지원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신임 조종사들에게 “본인의 발전과 공군의 발전을 위해 도전의식을 갖고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 달라.”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로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군-매경미디어그룹 MOU 체결

참모총장은 8월 2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과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에 대한 매경미디어그룹의 애정과 관심으로 장병들의 경제적 안목이 높아졌다.”고 감사를 표하며 “MOU 체결을 통해 상호 공동학술활동과 인적 교류 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차장 접견

참모총장은 8월 3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마크 빈스킨(Mark Binskin) 호주 국방차장 일행을 접견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참모총장은 “그동안 양국 공군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연합훈련 참가, 군수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09.NEWS

〈R2B : 리턴 투 베이스〉 시사회



지난 8월 9일 대전 CGV에서 계룡대 장병 및 대전지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R2B : 리턴 투 베이스〉 시사회가 개최되었다. 시사회에는 김동원 감독과 출연배우 신세경, 이종석씨가 참석해 무대인사를 했으며, 블랙이글 팬사인회도 함께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저시력자 조종자원 선발 확대
눈 나빠도 '빨간 마후라' 될 수 있다!**



전투조종사를 꿈꾸며 공군사관생도나 조종장학생이 되고 싶어도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빨간 마후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안 0.5 이하의 저시력자도 시력교정수술 PRK*가 가능하다면 조종자원으로 선발한다. 개선된 제도는 2013년 공군사관학교 지원자와 조종장학생, 학사·학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적용된다. 단, 시력교정수술을 이미 받은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PRK(Photo Refractive Keratectomy) : 각막굴절교정술로도 불리며, 각막 상피를 벗기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중심부를 절제하는 것으로 각막 상피나 절편을 벗겨내는 LASIK이나 LASEK과는 다르다.

**16비, 기지 인근 학생 초청 병영체험 실시
"일일 공군 체험을 명받았습니다!"**



16전투비행단은 지난 8월 16일, 기지 인근 초등학생 60명과 중·고등학생 60명을 초청해 안보현장 방문 및 병영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보·질서의식 특강, TA-50 항공기 및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 체험, 서바이벌 체험 등을 진행했다.

**18비, 주임원사·으뜸병사 간담회 실시
바다에서 펼쳐진 화합과 소통의 장**



18전투비행단은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부대 내 해양훈련장에서 주임원사단과 으뜸병사단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간담회는 해양훈련을 견해 실시되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캠프이어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병영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이 오고갔다.

**공군 군무원단,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 원 기탁
"순직 조종사 유자녀 돕는데 보탬되길"**



공군 군무원단은 지난 7월 24일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공군에 근무하는 군무원단은 약 4,000여 명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각종 기부 및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군 군무원단장 이도영 서기관은 "앞으로도 공군 군무원단은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일일 법 체험 실시
공군간부 자녀 40명 대상으로 '눈높이 법률교육' 진행**



공군은 지난 7월 31일 계룡지역 공군 간부 자녀 40명을 초청해 어린이 일일 법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초의 법 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 견학과 계룡대 군사법정 방문 등의 체험행사를 가졌다. 특히 모의법정 체험과 교도소 체험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생 최고의 교육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며 누구보다 책임감이 투철했던 청년의 모습을 유심히 눈여겨 보고 있던 사장은 그를 깊이 신뢰하여 작은 회사를 하나 맡기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착실하게 회사를 관리하며 업무 실적과 매출을 나날이 높여나갔고, 그러면서 그의 능력과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바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의 한 회사 대표가 협작을 의논하기 위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관한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랜 시간 이어진 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가지 요리를 시켜 먹은 뒤 마지막에 만두 두 점을 남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기 전, 청년이 종업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것도 낭비하지 않는 청년의 검소함에 호감을 느낀 외국 회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다음날 당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의 합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년에게 일을 맡겼던 사장은 중요한 계약이 잘 성사된 것에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외국 대표가 합작의 일등공신인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이토록 성실하고 검소한가?” 청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할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며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보다 뛰어나기보다는 그저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정교육이라 부르기에 부끄럽지만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옆에서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외국 대표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왔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위해 건배하세요. 자네는 인생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군.”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DREAMS
COME TRUE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스트레이트 스토리

* Hollywood English

라 체넨톨라

* 인생은 아름다워

두근두근 쿵쿵, 내 마음이 들리니?

* Art in Everyday

강남 스타일, 말춤으로 세계를 휩쓸다

* Air-Supply

9월의 문화행사

* Preview

36.5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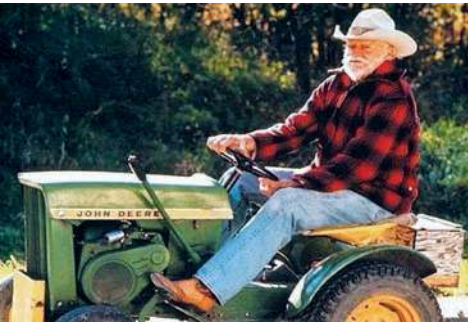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실화

스트레이트

- The straight story -

스토리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는 명작 드라마

“가정은 행복한 추억이 자라나는 곳입니다(Home is where happy memories grow).” 그리운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그리고 이 가을에 무척 잘 어울릴 문장 같아요. 이번 호엔 이 문장에 참 잘 어울릴 영화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스트레이트 스토리(The Straight Story)’ 이고, 감독은 데이비드 린치입니다. 매우 뜻밖인 특징은, <트윈 픽스 Twin Peaks>, <엘리펀트 맨 The Elephant Man>, <광란의 사랑 Wild at Heart> 등 컬트영화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그가 감동적인 정통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점이지요. 울 추석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명작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여보면 어떨까요?

앨빈 스트레이트의 스트레이트 스토리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성이 ‘스트레이트(Straight)’인 앨빈(리처드 판스워스)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이오와 주에 사는 노인 앨빈 스트레이트가 비보를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위스콘신 주에 사는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건 앨빈도 최근 골반 뼈가 약해진 탓에 크게 쓰러져 거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앨빈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갖추고요. 그의 표정엔 당장 안 떠나면 다시는 형을 못 볼지 모른다는 절박감이 가득합니다.

과거로의 여행 형식을 딴 앨빈의 오디세이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과거로의 여행(a journey into one’s past)’ 형식을 딴 작품입니다.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는 설정이기에 서사적 스토리텔링을 위해 잘 어울리는 형식이지요. 독자들께선 혹시 제목의 Straight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이트하게, 즉 감독이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지요. 감독은 앨빈이 긴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십대 소녀, 청년, 장년, 동년배 노인의 순으로 배치합니다. 인생의 가장 먼 출발점에서 현재까지를 시간순으로 되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느껴지지요. 앨빈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주름살처럼 골이 깊은 그의 지혜를 경청해 볼까요?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앨빈이 처음 만난 사람은 십대 소녀입니다. 가출한 소녀이고, 아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앨빈은 그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나뭇가지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가족은 묶어놓은 나뭇가지와 같아. 한 개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를 묶으면 부러뜨리기 어렵거든. 그 묶음이 바로 가족이야(That bundle...that’s

family).”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 즉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를 연상케 하는 명대사이지요. 다음날 아침 소녀가 떠난 자리엔 나뭇가지들이 수북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리본으로 묶어놓은.....!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앨빈은 길에서 청년들도 만납니다. 자전거 동호회 청년들입니다. 앨빈이 그들 중 뼈딱한 성격의 한 청년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도 들어볼까요? “나한테 ‘늙으면 나쁜 게 뭐냐(What’s the worst part about being old)?’ 고 방금 물었나? 그건 말일세, 젊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하게 된다는 거지(The worst part of being old is remembering when you was young).” 특 하면 언쟁을 일삼는 쌍둥이 정비사 형제들께겐 이렇게 충고합니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네(A brother is a brother). 싸우지 말게. 나이 차가 작은 형제만큼 서로의 삶을 더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네네.” 마지막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앨빈과 그의 형의 나이 차를 연상케 하는군요.

분노와 허영심이 갈라놓은 형제애

대단원에 다가가면서 우리는 앨빈과 그의 형이 왜 멀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공동묘지 곁에 있는 교회에서 앨빈은 목사를 만납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강렬하게 우리의 관심을 빨아들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형과 멀어졌냐고 물으셨죠? 그놈의 분노와 허영심 때문입니다. 분노와 허영심을 술과 섞어 마셔보십시오. 10년 넘게 말을 끊고 왕래도 끊고 살아온 우리처럼 된답니다. 나와 형을 광분하게 만든 것들이 뭐든 이젠 다 상관없어요. 형과 화해하고 싶어요. 형 곁에서 별도 바라보고 싶어요. 누구의 꿈이 더 큰지 재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즐겨 그랬던 것처럼.” 앨빈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말로 형과 싸웠다는 사연을 고해성사처럼 고백한 것이지요.

시속 8km로 6백km를 달려가다

앨빈이 마침내 형과 재회합니다. 앨빈의 형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곤 딱 한 마디 묻습니다. “나를 만나려고 저걸 타고 여기까지 온 거냐(Did you ride that thing all the way out here to see me)?” ‘저것’이란 과연 어떤 교통수단일까요? 시속 8km밖에 이동할 수 없는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30년이나 ‘늙은’ 것입니다. 뒤에 여행 장비를 실은, 잔디 깎는 기계보다 몇 곱절 더 큰 트레일러까지 붙여 있습니다. 73세의 앨빈은 6주 동안 그걸 타고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6백km를 넘겨 ‘달려서’ 온 것입니다. 이제 형제는 함께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AF**

왕자의 구혼을 거절한 여인의 이야기

로시니의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꿈꾸는 자는 언제나 아름답다. 비록 그것이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꿈일지라도...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의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역시 꿈꾸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평범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어느 왕의 사랑을 꿈꾸는 여인의 이야기로... 그런데 이탈리아어 '라 체네렌톨라'는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른 아닌 '신데렐라'가 된다. 우리에게 동화로 친숙한 신데렐라...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졌던 행복한 결말의 여주인공... 그 꿈 같은 이야기가 200년 전, 이탈리아의 오페라 무대 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이탈리아 판 신데렐라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신데렐라, '안젤리나'. 그녀 역시도 주위 사람들의 구박을 받는 마찬가지로였다. 한참 꾸밀 나이에도 잿더미 속에서 청소를 하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여인. 그 옆에는 꾸며도 별반 나아질 것 없는 새언니 둘이 거울을 보며 치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 판 신데렐라 이야기는 조금 다른 설정으로 시작된다. 계모 대신 계부가 등장해, 새언니들과 한 편을 이루는 것이다. 새엄마 대신에 새아버지가 악역을 맡았으니, 그 구박의 정도가 덜했을까... 하지만 안젤리나의 계부 역시 천성이 선하지 못했던가 보다. 외톨이 안젤리나를 감싸주지 못하고 새언니들 시집보내는 것만 안달이 났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 가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무도회장에 가야만 왕자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꿈을 이룰 수 있었기에, 무도회장에 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데렐라의 급선무였다. 그래서 동화 속에,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에 요정 할머니가 등장한다. 푸근한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이 된다. '비비디 바비디 부'를 외치며 요술 지팡이를 가리키는 신비한 요정 할머니... 할머니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자그마한 유리 구두를 신고... 더없이 행복해 하는 신데렐라에게 요정 할머니는 만반의 준비를 해준다. 호박을 마차로, 생쥐를 말로, 큰 쥐를 마부로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법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밤 12시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12시가 되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신데렐라는 다시 재를 뒤집어쓰는 여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그마저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기회였으므로...

드디어 화려한 무도회장에 도착하고, 신데렐라는 가장 주목받는 여인이 된다. 천성이 고운데다 요정 할머니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얻었으니,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을 여인이 없었다. 드디어 왕자에게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되고, 왕자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하지만 바로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요정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린 신데렐라는 황급히 궁궐을 빠져 나간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뛰어가는 신데렐라의 뒷모습을 보며, 왕자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기만 했다. 그런데 12시가 돼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 유독 한 가지만큼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왕자의 손에 들어간 유리 구두였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속 이야기다.

하지만 이탈리아 판 신데렐라 이야기는 전개 과정이 조금 다르다.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관문이 더해진 것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찾겠다고 결심한 '라미로 왕자'는 그의 시종과 옷을 바꾸어 입고는 이집 저집을 찾아다닌다. 그리고는 여인들의 평소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종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인, 평소에도 고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 그런 여인을 찾겠다는 것이 왕자의 계획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페라 속 왕자는 동화 속 왕자보다 여자 보는 눈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치장한 아름다움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오페라 속 신데렐라도 마찬가지로였다. 동화 속 신데렐라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무도회장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페라 속 신데렐라는 집을 찾아온 시종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작 무도회장에 가서는 왕자의 구혼을 거절한다. 구혼하는 왕자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녀 역시 왕비가 되는 꿈을 꾸었음에도...



이처럼 동화 속 신데렐라와 오페라 속 신데렐라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는데, 눈여겨 볼 차이점도 있다. 오페라 무대 위에는 마음씨 좋은 요정 할머니 대신에 왕자의 스승이 신데렐라를 무도회장에 데려다 준다. 또 유리 구두 대신에 팔찌가 신데렐라의 징표가 된다. 무도회장에 간 안젤리나는 왕자의 구혼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정말 아낀다면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며 팔찌를 남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깨져 상처를 주는 유리 구두보다는, 착용하기 쉬운 팔찌가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이처럼 다르게 전개되던 신데렐라 이야기도 결론은 비슷한 구조로 맺어지는데... 신데렐라를 잊지 못하는 왕자가 온갖 어려움 끝에, 수소문 끝에, 신데렐라를 찾겠다는 이야기는 같다. 하지만 유리 구두가 맞는 여인이 신데렐라밖에 없었던 동화와 달리, 오페라 속의 신데렐라는 왕자의 팔찌를 자신이 먼저 알아본다. 팔찌를 들고 나타난 왕자가 사랑하는 시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페라 속 여인도 꿈을 이루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안젤리나는 단지 허황된 꿈만 꾸 여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내면으로 성숙했던 여인... 더 좋은 조건 앞에서도 신의를 지켰던, 수동적이지 않은 여인...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 판 신데렐라, 라 체네렌톨라는 우리의 삶에 더 가까운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AF**



함경아_museum display



수라시 쿠술흥_Golden Chance



흩쳐지고 뒤바뀐 사물들

두근두근 쿵쿵, 내 마음이 들리니?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중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시인의 마음이 되어 나도 따라 노래해본다. ‘바다 건너에 섬이 있다. 그 섬에 내 심장이 있다.’ 2009년 가을, 지금은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 건립 공사가 한창인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공간에서는 ‘플랫폼 인 기무사’ 라는 현대미술 축제가 열렸다. 플랫폼은 예술과 도시의 관계를 탐구해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가을이면 열리는 미술 축제로 서울 시내 곳곳의 미술관, 화랑들은 물론 구서역사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도 전시공간으로 쓰이곤 했다. 플랫폼은 매년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했는데 2009년 플랫폼의 전시 주제는 ‘Void of Memory(기억의 공백)’, 그리고 선택된 공간은 옛 기무사 공간이었다. 전에 기무사로 쓰이던 건물 자체를 그대로 전시장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던 금단의 공간에 들어선다는 호기심이 더했던 ‘플랫폼 인 기무사’. 거기에 더해 70여 팀이 넘는 작가와 큐레이터, 미술기관들이 참여해 지하부터 옥상까지 세 동의 건물을 빼곡히 채운 전시 자체도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이벤트였다.

미로와 같은 전시장 구석구석에 놓인 작품들을 감상하고 두 다리를 두드리게 될 무렵, 어느 방 앞에 놓인 의자에 번호표를 받아든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방 안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프랑스 작가의 ‘심장보관소’ 라는 작업이었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는 제2차 세계대전 말, 파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열네 살부

터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해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잡은 인물이다.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그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물들을 수집해왔는데 '심장보관소' 역시 그런 그의 수집품목 가운데 하나로 2008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4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일본 시코쿠 지역의 세토내해에 있는 '테시마'라는 섬에 보관해두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와 함께 두근두근 쿵쿵, 작은 집안을 울리고 있을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 언젠가 그 소리의 주인인 심장은 멈추더라도 그의 보관소에 저장된 심장 박동 소리만은 파도소리와 함께 힘찬 박동을 계속하게 되리라. 한때 자신의 주인이던 누군가의 삶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심장보관소'가 번호표를 끊어 기다려야 할 만큼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 이유 중에는 아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CD에 녹음해 준 것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은 심장이 꼭 '두근두근' 뛰는 건 아니더라는 것(두근두근 두두근 이러면서 불규칙하게 될 때도 많았다.). 사실 청진기 같은 기계를 통하지 않고서 평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몹시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도 할 것이다(아마 대부분의 경우 귀로 듣는다고보다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지만). 그 무렵 인근의 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던 함경아 작가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녀는 '제 작업을 보시고 제가 굉장히 대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누가 봤을까봐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거리고 그랬어요.' 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그녀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길까봐 두근두근 쿵쿵대는 심장 박동 소리를 숨겨야만 했던 이유는 그녀의 작품들을 둘러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환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는 그녀의 작품 '유지엄 디스플레이'. 눈부신 진열장 안에는 멋스러운 찻잔과 접시, 양념 통, 재떨이, 반짝반짝 빛나는 손가락과 포크..., 탐나는 장식품들이 가득하다. 요즘처럼 별별 것을 다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다지 크게 놀랄 것도 없다. 하지만 아귀자기한 물건들을 모으는 작가의 취향인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눈길을 돌리는 순간 눈에 번쩍 뜨인 작품 설명은 이랬다. '작가가 지난 9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카페나 호텔 같은 곳에서 훔쳐온 물건들이다'. 이 작품을 하는 동안 왜 작가의 심장이 그리 쿵쾅했는지 이제야 단번에 의문이 풀렸다.

물론 함경아 작가가 그저 이 물건들이 갖고 싶어서 훔친 것은 아니다. 그녀가 이 작업을 처음 구상하게 된 것은 2004년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하면서부터. 방탄유리에 보안장치까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유물들을 보면서 작가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아! 정말 많이도 훔쳤구나!'. 사실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해 대영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같은 세계적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 대부분이 그들의 식민지나 그들이 침략했던 나라에서 약탈해 온 유물들이 아닌가. 작가는 그 유물들을 보면서 '한 국가의 권력이 행한 도둑질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나 같은 개인이 이걸 따라해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상용품들을 훔치고, 그 물건들을 모아서 '유지엄 디스플레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국가가 저지르는 약탈과 작품을 위한 작가의 절도... 여기에 우리는 어떤 윤리 기준을 내밀어야 할까. 문득 물건을 훔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작가처럼 다른 나라의 유물들을 약탈하도록 지시한 사람의 심장도 그렇게 쿵쾅했는지 궁금해진다.

물건 훔치기에 성공한 함경아 작가가 그 뒤에 이어 한 작업은 바뀌치기다. '훔쳐지고 뒤바뀐 사물들'이란 제목으로 사진과 설명이 함께 내걸린 이 작품에는 카페 안 풍경과 커피 잔 하나만 바뀐 채 똑같이 보여지는 테이블 세팅의 사진이 나란히 선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쓰여 있다. '한국에서 나는 카푸치노를 주문했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프랑스에 도착해 카푸치노를 주문했고, 그 잔을 한국에서 가져온 잔과 바뀌치기 한 후 그 곳을 떠났습니다.' 카페에서, 비행기의 기내식 서비스에서도 이런 바뀌치기를 시도해 그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역사나 문화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놓여 있는 유물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유물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그 유물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을 갖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어쩌면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해서야 되는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절도행위를 정당화하니, 하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하기에 앞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물음들에 정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귀여운 약탈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남들이 볼까봐 두근대는 심장 박동도 있지만,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심장 박동, 내가 그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두근대는 심장 박동도 있다. 앞서 말한 현대미술축제 플랫폼 서울의 2008년도 전시에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었던 '황금의 기회'라는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그랬다. 태국 작가인 수라시 쿠술롱의 이 작품이 전시된 전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쉽게 전시장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전시장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이 방 어디엔가 바닥을 덮고 있는 실 뭉치 아래, 작가가 디자인하고 만든, 무너진 세계 경제의 상징으로서 'No THinG'이라는 글귀가 쓰인 다섯 개의 금목걸이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습니다. 실 뭉치가 쌓인 바닥을 걸으면서 숨겨진 금목걸이를 찾아가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렇다. 작가는 다섯 개의 순금목걸이를 넓은 전시장 바닥에 흩어 놓고 그 위를 실 뭉치로 가득 덮어 놓았던 것이다. 체면 따위는 전시장 밖에 던져두고 실 뭉치 위에 주저앉아 이리저리 실 뭉치를 들추며 목걸이를 찾아 헤맸건만 내게 황금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목걸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정말 내가 그 목걸이를 찾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무심코 내게 찾아들지 모를 행운의 기대에 한동안 내 심장은 쿵쾅거렸던 것이다. 며칠 후 근처를 지나다가 다시 전시장에 들렀을 때 전시장 입구에는 목걸이를 찾은 행운의 주인공들이 남긴 인증 샷이 붙어 있었는데 환한 미소의 그들을 보는 동안, 손끝에 황금목걸이가 닿았을 때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지, 그 기쁨의 심장 박동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 했다.

두근두근 쿵쿵.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작품을 마주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은 머리보다 먼저 쿵쿵 우리 마음을 울려준다. 물론 살다보면 피하고 싶은 두근거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울 가을만큼은 두근두근 쿵쿵, 기분 좋은 심장 박동 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AF**

강남 스타일, 말춤으로 세계를 휩쓸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소녀시대의 사진이 커다랗게 붙은 광고판을 봤다. 그 아래에는 '강남구 홍보대사 소녀시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저런 홍보도 하나 싶었지만, 홍보대사가 소녀시대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강남구는 서울, 아니 전국에서 가장 '내가 제일 잘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동네고, 소녀시대는 가장 잘나가는 그룹이니까. 하지만 몇몇 주 사이에 강남구청에서는 홍보대사를 바꿔야할지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았을까. 다들 알다시피 사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이다.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내세운 이 노래는 재미있게도 강남을 넘어 한국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모든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고, 언젠가부터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2,700만을 넘어섰다. 아이돌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끄는 가수의 노래가 아닌데도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다. 미국의 유명 뮤지션 티 페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고 SNS에 소감을 남기는 것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강남 스타일'의 인기 요인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누군가는 신나는 가사와 유재석, 노홍철, 현아 등이 출연한 뮤직비디오의 힘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잘 노는 노래를 모두가 기다려왔다고도 한다. 또는 한강 둔치에서 조깅하는 아주머니, 관광버스에서 노는 노인들 등 한국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재밌다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강남 스타일'이라는 제목이다.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모든 코믹한 요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 스타일로 묶인다. 그런데 그 스타일의 정체가 '강남'이다. 싸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서울의 수도, 가장 핫한 도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남은 '1등'의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니 시도 아닌 구 단위 지역에서 소녀시대를 홍보대사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싸이는 '강남 스타일'을 통해 강남의 의미를 뒤집어 놓는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여러 요소는 모두 우리가 촌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고, 싸이가 추는 '말춤' 역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춤추지 않는 '복고 댄스'다. 또한 싸이는 커다란 풀장이 아닌 목욕탕의 작은 욕조에서 수영을 즐긴다. 하지만 싸이는 이 모든 것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우긴다. 전혀 강남 느낌이 나지 않는 춤과 놀이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게 강남 스타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노래의 또 다른 유머 코드다. 촌스러운 스타일과 유행 지난 춤을 추며 내가 잘나가는 '오빠'고, 클럽에서 여자들에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며 허세를 부린다. '강남 스타일'에서 강남은 잘나가는 도시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단어를 쓰는 잘 못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곳이 모두 그리 별 볼일 없는

장소인 이유다. 경마장, 관광버스, 한강 둔치 같은 곳에서 한참 유행이 지난 춤을 추며 '강남 스타일'이라고 우기는 남자의 모습은 모두가 웃을 법한 캐릭터다.

그러나 반전. '강남 스타일'이 처음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니다. '강남 스타일'은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히트를 쳤고, 해외에서 주목한 것은 좀 더 후의 일이다. '강남 스타일'이 첫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그저 신난다며 좋아했고, 거짓말처럼 그 촌스럽다면 말춤을 따라 했다. 약간 뽕짝 같기도 한 전자음의 리듬에 맞춰 말춤을 추고, '오빠 강남 스타일'을 반복하니 그저 신날 뿐이다. 최신 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들도 '강남 스타일'을 실 새 없이 들으며 춤을 춘다. 올해 열린 다양한 록 페스티벌에도 '강남 스타일'을 틀어놓고 노는 20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강남 스타일'은 오히려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별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싸이처럼 의도적으로 촌스러움을 노리고, 허세 가득한 척 하는 노래에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그저 즐거우면 그만일 뿐, 놓고 즐기는데 정해진 '스타일' 같은 것은 없다. 얼마 전 끝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팀은 금메달이 확정된 뒤 유니폼을 입은 채 마치 소녀시대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웃음을 샀다. 그들의 세레머니가 촌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싸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진지하게 춤을 추지만 다른 사람들을 웃기듯, 그들의 세레머니도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다시 한 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관광버스의 노인들이나 한강 둔치에서 조깅을 하는 아주머니들, 또는 지하철에서 모두 모여 말춤을 추는 젊은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게 놀고 있다. 강남이든 한강 둔치든 즐겁게 노는데 장소가 무슨 상관인가. 춤추는데 최신 유행 댄스든 말춤이든 월 가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싸이가 대중을 사로잡은 것도 그런 힘 때문이었다. '챔피언', '연예인', 그리고 '강남 스타일'까지 그는 흔히 말하는 '싼티'라는 스타일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멜로디의 음악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 '강남 스타일'은 그렇게 '럭셔리'하지도, 유행을 따르지도 않는 것 같은 싸이의 역습인 셈이다. 대놓고 '싼티'를 강조한 음악으로도 얼마든지 대중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강남구 홍보대사 소녀시대의 음악만이 대중을 사로잡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싸이는 진짜 강남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합류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또는 어떤 춤을 취하든 다 즐거워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강남 스타일 아닐까.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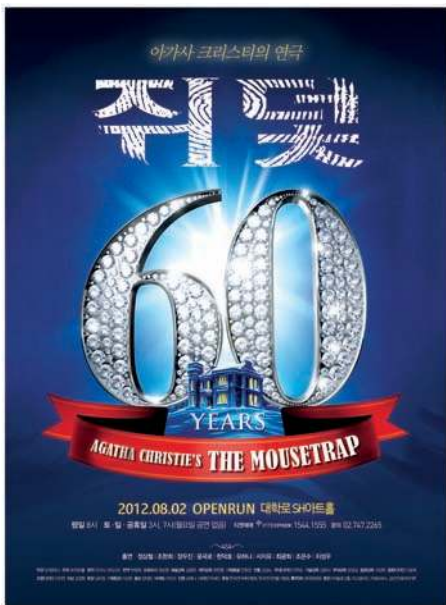
전 세계 역사상 최장 기록 수립!
아가사 크리스티 연극 <쥐덫>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극 <쥐덫>이 환갑을 맞아 한국에서도 초연을 갖는다. 지난 1947년, 팔순을 앞둔 영국 메리 왕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는 BBC 라디오의 질문에 왕비가 “오페라도 셰익스피어도 아닌 아가사 크리스티의 연극”이라고 답해 시작된 연극 <쥐덫>. 현재 공연 역사상 최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작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 물리와 가일즈가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런던 집에 여인숙을 개업하면서 시작된다. 이 무렵 뉴스에서는 연일 중년 여성이 살해돼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다. 여인숙에는 손님들이 하나 둘 짐을 푼다. 이런 가운데 형사로부터 투숙객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물리와 가일즈. 연출을 맡은 김성노 연출가협회장이 “이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까지도 극장에 북적거리도록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탄탄한 극본개가 눈여겨 볼 만하다.

소극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디자인은 무려 3백여 편의 오페라를 경험한 이학순 디자이너가 맡았다. 관객들에게 극사실주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 미술에서부터 음향, 조명, 의상 등 모든 면에서 오로지 관객만을 생각했다는 <쥐덫>팀. 런던 올림픽의 감동이 무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간 : 오픈 런
- 장소 : 서울 대학로 SH 아트홀
- 가격 : R석 5만원 / S석 3만 5천원
- 홈페이지 : <http://www.themousetrap.co.kr>



Preview

故 이태석 신부의 감동 실화!
뮤지컬 <울지마 톤즈>

2년 전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던故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돌아왔다.故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아이들을 위해 직접 노래를 만들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태석 신부의 어린 시절, 가난한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성당 칸에 놓여져 있던 오르간이었다. 직접 작사, 작곡하는 데 소질이 탁월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태석 신부의 자작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넘버(OST)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100% 후원금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대형 뮤지컬처럼 화려한 의상이나 무대를 기대한 관객이라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이태석 신부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점과 뮤지컬 배경인 아프리카 특유의 신나는 타악 퍼포먼스는 그 어떤 뮤지컬도 흉내낼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더운 여름 고생한 공군 가족들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올 여름 마무리는 시원한 공연장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 기간 · 장소 : 9/14~9/16 대구 오페라하우스(군인 40% 할인),
9/22~9/23 울산 문화예술회관(50% 할인),
11/3~11/4 원주 백운아트홀(50% 할인)
- 가격 : R석 7만 7천원 / S석 5만 5천원 / A석 4만 4천원 / B석 3만 3천원
- 할인예매 문의 : 1661-1476(담양자 : 김혜민 티켓매니저, 010-6551-7341)
- 홈페이지 : <http://www.울지마톤즈.com>



금연! 가족과 공군과 나라를 지킨다
* 공군지 캠페인

2012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 땀띠 관리
* Health Diary

<김훈> 읽기 - 그의 인문성에 대하여
* 독자기고

생각하는 9월
* 책마을

Opinion



흡연은 가족과 국가에 대한 직무유기다

직업군인으로 전방에서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운동도 잘하고 건강했으며, 열 살된 딸에게는 너무나도 자상한 아با였던 육군 원사 A씨(51세). 그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럽게 폐암 진단을 받았다. 청천병력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선임으로부터 물려받은 담배 한 대였다. 그 한 대가 한 갑이 되고, 한 갑 반, 두 갑으로 변했고 지금은 본인을 죽음으로 몰고 온 것이었다. 담배로 인해 그는 가정을 잃었고, 국가가 소중한 전투원을 잃게 되었다.

방사능, 석면보다 위험한 담배,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공군의 흡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흡연율은 35%로 성인남자 흡연율인 39%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담배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는 코미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하나만 발견돼도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거기다 세금까지 걷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일본 방사능보다 위험하고, 석면보다 폐암을 일으키기 쉬우며 고엽제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맛있습니까? 독약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9월 한 달은 흡연자들을 금연클리닉으로 보내주세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금연시도자의 3%에 지나지 않는다. 금연의 시작은 본인의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흡연에 대한 인지부터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군의 의무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은 전 장병 및 군우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측정, 폐활량 측정, 니코틴 중독성을 평가하고, 매주 1회씩 총 12주간 지속적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금연 결심자에게는 ‘금연 시작’ 배지를 부착하도록 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어렵다. 주변의 흡연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9월 한 달은 흡연자들을 강제라라도 금연 클리닉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

기업 금연정책으로부터 배우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군!

흡연과 업무효율성과의 상관관계는?

지난 2010년 영국 지방의회에서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을 일일이 체크해, 근무시간에서 빼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근무중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된 시간은 더 이상 임금지불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지였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느라 소비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영국의 직원들은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는 도중에 쉴 권리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흡연과 업무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팽팽한 논쟁이 오고 갔다.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로 평가

외국에서는 흡연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직장인들이 업무 중 1시간 이상을 흡연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흡연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지 오래다. 하루에 십 수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흡연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담배를 피고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10~15분의 시간을 감안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업무시간 자체가 짧다는 지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를 공군에 그대로 대입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금연은 피할 수 없는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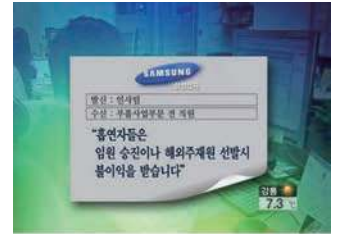
국가차원에서 금연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다. 업무효율성 강화와 직원 건강증진을 목표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기업들은 각양 각색의 정책을 펼치며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대기업들

2010년부터 금연정책을 펼친 삼성전자는 최근 전 임직원들에게 E-mail을 통해 흡연자에 대해 승진과 해외 주재원 선발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는 등 강력한 금연의지를 갖고 있기로 유명하다. 전 직원들에게 금연 서약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룹장·팀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는 금연 때까지 매달 흡연 여부 검사도 실시한다. 포스코 그룹은 사옥 내뿐만 아니라 사옥 주변에서 몰래 흡연하는 직원들을 단속하는 별도의 팀이 있을 정도로 전 직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E-랜드 그룹은 아예 금연을 약속해야만 입사할 수 있는 기업이다. 기업들의 인재 평가기준에 흡연여부가 포함되어 버린 것이다.

자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

1991년 전 사업장 금연을 시행한 아시아나그룹은 국내 금연정책의 선구자이다. 회현동 소재의 아시아나 빌딩은 국내 제1호 금연빌딩이기도 하다. 기내 담배 판매 중단, 전 직원 대상 금연 서약서 집행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학교를 운영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금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금연토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흡연자가 금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게 배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연 희망자가 선수가 되고 비흡연자가 도박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미를 통해 금연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인 남양유업이나 대상, CJ제일제당과 같은 기업에서는 금연펀드도 인기가 있다. 흡연자들끼리 일정금액을 내고 금연에 성공한 이들이 실패한 흡연자의 가입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연펀드를 통해 참가자의 40%에 이르는 금연 성공률을 거두기도 했다. GS건설은 금연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와 흡연자가 각각 20만 원을 각출해 금연펀드를 하고 있다. 6개월 후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자로 확정되면 회사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참가자의 20만 원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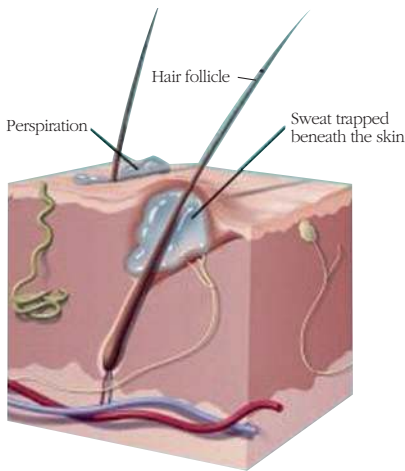
2012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

땀띠 관리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 여름 진정 무더위가 무엇인지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입추를 훌쩍 지난 요즘도 간혹 무더위를 느끼곤 하는데 공군장병 및 군무원분들 모두 건강을 챙겼으면 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을 때 온 신이 땀에 젖게 되는데 오래일수록 피부는 정말 몸살을 앓게 됩니다. 땀은 몸을 끈적하게 하고 축축하게 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만, 땀 분비는 체온조절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는 땀샘이 분포되어 있어서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오르면 땀을 분비하여 체온을 조절합니다. 땀샘이 거의 발달되지 못해서 덥거나 흥분하면 대신 입을 벌려 혀를 내밀며 헐떡거리는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귀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토끼와 달리 인간 및 소, 곰들의 동물들은 땀샘을 통해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런 중요한 땀샘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겠죠. 이번 달은 땀 분비 및 더운 시기 종종 발생하는 땀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땀샘의 구조

땀샘은 피부의 진피 층에 위치하며 온몸에 약 200만~400만 개가 있으며, 땀샘 주위를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어 혈액 속의 노폐물과 물이 모세혈관에서 땀샘으로 보내져 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땀을 흘릴 때 피부표면에서 주위의 열은 흡수되고 증발하므로 체온을 낮아지게 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시



킵니다. 우리 몸에는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크린 땀샘은 귀두부, 소음순, 손발톱을 제외한 피부에 분포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의 피부에 많이 있습니다. 아포크린 땀샘은 겨드랑이, 바깥귀길(외이도), 눈꺼풀 등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사춘기가 되어서야 발달하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에크린 땀샘의 주된 기능은 저장액을 만들어 몸의 표면에서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아포크린 땀샘은 동물에서의 경우 방어 및 성적 역할에 관련된 냄새를 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땀띠의 원인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져서 땀관을 통하여 피부 표면으로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통로인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히면 땀샘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히는 원인으로서는 습열, 자외선, 반창고 등에 의한 자극이나 비누의 과다사용, 세균감염 등의 외적인 요인과 많은 양의 땀, 피지 생성 감소 등의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종종 발생하는 땀띠는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땀구멍이 막혀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작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7~8월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들은 어른에 비해 땀샘의 밀도가 높고 표면적당 발한량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땀띠가 더욱 잘 생깁니다.

땀띠의 증상

땀띠는 땀구멍 주위가 가렵고, 홍반성의 구진(경계가 명확하게 피부가 솟아올라 있는 병변)이 동반되는 상태입니다. 주로 얼굴, 목, 가슴, 겨드랑이에 발생하며, 땀띠는 대개 가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긁는 경우가 생깁니다. 땀띠를 긁으면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 농포성 땀띠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피부에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이 생깁니다. 가렵다고 심하게 긁으면 이후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땀띠는 대개는 시원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면, 하루 안에 자연 소실됩니다. 국소적으로 땀이 안 나는 증상은 최대 2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는 땀샘을 배출하는 구조에 발생한 문제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땀띠의 치료

땀띠 치료의 기본은 환자를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내온도는 약 20도 정도 습기는 약 60% 정도로 해서 건조하지 않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땀띠를 예방할 수 있고 땀띠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땀띠가 있는 경우 찬물로 피부를 좀 식혀주는 게 도움이 되며, 대신 샤워를 할 때 피부를 자극하는 클렌저나 비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오이 혹은 녹차와 같은 수분을 줄 수 있는 재료로 땀띠 부위를 마사지 해서 진정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이왕이면 차가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땀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부모가 매번 요약을 바르듯이 땀띠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우더는 땀과 수분에 젖어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땀구멍을 막아 땀띠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파우더를 발라야 하니 사용에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땀띠로 심하게 가려울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할 수도 있으며 간혹 항생제가 땀띠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땀띠의 예방

땀띠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으로 열과 습도를 조절하여 땀의 분비를 촉진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체온을 낮게 조절하고, 달라붙는 옷을 피하며,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더 시원한 기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경구 항생제, 비타민 섭취, 경구 레티노이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땀띠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입증된 약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띠 없애는 방법은 땀띠를 예방하고 심각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띠의 잘못된 상식으로 덥기만 하다고 해서 땀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위와 추위가 자주 반복돼도 땀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에어컨과 선풍기를 이용해 땀을 증발시키는 것보다 샤워를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땀띠 예방법이 됩니다. 그 외 장시간 지속되는 땀띠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데, 외형적으로 땀띠로 오인할 수 있는 다른 피부병과 혼동하여 단순히 땀띠로 여기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릴 시기. 아무쪼록 공군 식구 분 모두 각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AF**

'12년 우수 독후감 선발대회 최우수작

〈김훈〉 읽기 - 그의 인문성에 대하여



〈칼의 노래〉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온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은 이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담배와 함께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고 한다.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의 차이 때문인데,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라고 썼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은’이라는 조사는 사람이 꽃을 바라볼 때 쓰는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꽃을 말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 ‘이’로 바꾸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주관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다. 또한 수식어나 접속어의 사용을 꺼린다. 그는 기자 출신답게 철저할 만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즐겨 쓴다.

‘그 여름에 당신의 소매 없는 블라우스 아래로 당신의 흰 팔이 드러났고 푸른 정맥 한 줄기가 살갗 위로 흐르고 있었다. 당신의 정맥에서는 새벽안개의 냄새가 날 듯했고 정맥의 푸른 선은 낮선 시간의 빛깔이었다. 당신의 정맥은 팔뚝을 따라 올라가서 점점 희미해서 가물거리는 선 한 줄이 거드랑이 밑으로 숨어들어갔다. 거드랑이 밑에서부터 당신의 정맥은 몸속의 먼 곳으로 향했고, 그 정맥의 저쪽은 깊어서 보이지 않았다.’와 같은 그의 글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이다. 하지만 이 글이 단지 객관적인 서술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의 너무나도 사실적인 진실의 표현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두드러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이듯 그의 글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사실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그의 ‘인문성(人文性)’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의 ‘인문성’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글들에서 항상 나타난다. 나는 왜 그에게 인문성이 있다고 하는가? 또 ‘인문’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인류의 문화나 인물과 문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인류의 질서’라고 나와 있다. 또한 ‘인문학이란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이를 답하기 위해 〈논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의미가 반대하여 모든 것을 읽고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읽기 시작한 지 반 년 동안 1/3 정도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 핵심은 제일 첫장에 나와 있다. 단언컨대 논어의 주제는 제1편(학이(學而)편) 1장이다. 그 중에서도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첫 문장이 핵심인데, 이를 직역하면 ‘배우고 제때에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이다. 여기서 배운다(學)이라는 말은 단지 시험 따위 등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다. 이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 -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고, 미래의 나를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에 대한 답이다. 즉 ‘인간의 조건’을 위한 삶의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일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도, 천명, 성, 정, 덕, 의, 경(禮, 道, 天命, 性, 情, 德, 意, 敬)’ 등에 대해 언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자.³⁾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天命)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性)을 인식하여 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배우는 것(學)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다른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나를 인식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이를 언어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 혹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문성’이며 ‘인간의 조건’이 될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들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성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사랑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감정을 언어로써 풀어 낼 수가 없다. ‘이 감정은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지만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다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키스나 스킨십 등)이 행하여지면 그 행동 자체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이시킨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거나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책을 읽었는데,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하곤 한다.

이와 같이 세상과 나, 타인과 내가 관계하는 통로를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에 의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한 속성을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인문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훈의 글이 그러하다. 그는 절대적인 사실로써 글들을 풀어내간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나열은 단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이면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의 눈은 매우 날카롭고 세밀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글로써 풀어내는데, 그가 동백꽃이나 산수유를 보고 표현한 아래의 글들은 정말로 언어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점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벼재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1) 김훈, 〈바다의 기벌〉 중에서. 이 글은 〈화장〉에서의 주인공이 추은주를 바라보며 생각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2) ‘때때로’와 ‘제때에’라는 말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수시로 익힌다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익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때에’라고 직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본다.
3)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논어강설’,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을 참고할 것.

어렵듯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 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스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⁴⁾

한 단어씩 주의 깊게 보면서 다시 음미해보면, 이러한 언어의 향연은 나로서는 도대체가 해낼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된다. 내가 쉽게 지나쳐가는 세상의 흐름을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찾아내고 자신만의 언어로써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나는 어떠한가. 교육을 받을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타인의 관점과 정리된 사상이, 정리와 명제가, 그리고 온갖 규칙이 머릿속에 쌓여간다. 배우는 것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은 채, 결과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게 된다. 세상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없이 모든 것을 객관화하려는 교육은 얼마나 획일적이고 위험한가.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산의 정상만을 바라보고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 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문성’이란 세상과 나, 그리고 타인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이자 방법이다. 우리는 얼마나 빠른 세상에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천천히 집중해서 사물이나 자연을 보지 못하고 단지 스쳐지나가는 풍경으로만 인식하지도 못한 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책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는 엑시스만을 뽑아 기억하려 하지 않는가. 언젠가 어느 책에서 ‘현대인들은 모두 게으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OOOOO를 할 여유가 전혀 없어!!!’라고 외치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다니. 그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관성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은 바쁘게 살고 있다는 ‘잘못된 성실함으로 자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산을 가서 주변의 나무와 바람과 계곡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단지 정상에만 오르면 산에는 왜 가는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삶이 너무 바빠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황폐해져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자신의 삶이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갑자기 생기는 삶에 대한 애착들은 결국 삶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기보다는 삶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며,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김훈>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뛰어난 작가의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뛰어난 창의력과 세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을 통해 무언가 구체적이고 다른 의미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또한 인생의 어느순간에 나를 깨우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인문’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다. 나 이외의 세상과 내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통로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의 육체적인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속적인 훈련된 수련을

해야 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 발견해야 하며 자아에 대한 자신만의 느낌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는다는 건 처음부터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책 한 권을 읽고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비열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⁵⁾ 그래서 지속적인 독서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엔 이런 연습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귀찮다고 중요한 것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은 인생에 대해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서도 동물이라는 단순한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당위적인 교육이나 독서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독서는 세상과 관계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필연 같은 것이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쌓여 온 위대한 정신들의 창고이자 세상을 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로서의 책들을 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세상을 조금 더 천천히,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노력해 보자. 어쩌면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마음의 양식을 위한 책들을 읽어보자.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막연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근거 없는 믿음만으로 무자비한 출행을 감행한 십자군 전쟁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길 바란다. 대충 살아도 흘러가는 인생에 대한 죄책감에 쓸데없이 바쁜 척 살아가거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짊어지고 굶어 산다는 말로 지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척 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삶에 대한 도피처가 필요해서 막연한 이데올로기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단련하자. 그것은 독서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될 것이며, 나는 이를 위해 김훈의 글들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제 나는 그가 <칼의 노래>를 위해 은거하며 써 놓은 프롤로그로 이 두서없는 독후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00년 가을에 나는 다시 초야로 돌아왔다.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했다. 나는 내 당대의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 없었다. 제군들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 있는가. 그대들과 나누어 가질 희망이나 믿음이 나에게 없었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나는 영원한 남으로서 서로 복되다. 나는 나 자신의 절박한 오류들과 더불어 혼자서 살 것이다.

초야의 저녁들은 험거웠다. 내 적막은 아주 못 견딜 만하지는 않았다. 그해 겨울은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의 길들은 끊어졌고 인기척이 없었다. 얼어붙은 세상의 빙판 위로 똥차들이 마구 달렸다. 나는 무서워서 겨우내 대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은 보일 듯 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 나는 자주 아팠다.

눈이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여러 번 갔었다. 거기에,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그 칼은 나에게 말해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쓸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 가난한 글은 그 칼의 전언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사랑이여, 아늑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의 함대는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바다 노랑으로 오라. 오라, 내 거기서 한 줄의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⁶⁾ AF

4) 김훈, <자전거 여행> 중에서
5) 이현우, <책을 읽을 자유>에서 인용하였다.
6) 김훈, <칼의 노래> 중에서



생각하는 9월

뭔가 잘 하는 것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겸손한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PR을 잘 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들 합니다. 대학입시나 입사시험 등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튀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더욱이 다양한 유형의 SNS가 발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조용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내성적이고 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을뿐더러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직접 떠벌리고 다니기에 민망한 것이지요. 때론 이런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가져보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콰이어트』(수전 케인 저, 김우열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2012)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책은 『디맨드』(슬라이워츠키, 칼 웨버 공저, 유정식 역, 다산북스, 2012)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요(需要) 즉,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어떠한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로서 어떻게 하면 수요자의 마음을 얻어 선택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실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제품을 만든다(Magnetic), 고객의 고충지도를 바로잡는다

(Hassle Map), 완벽한 배경스토리를 창조한다(Backstory), 결정적인 방아쇠를 찾는다(Trigger), 가파른 궤도를 구축한다(Trajectory), 평균화하지 않는다(Variation) 등 저자가 제시한 수요창조자들의 6가지 프로세스는 단순히 수요를 창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경영의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책은 『또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티나 로젠버그 저, 이종호 역, 이택광 감수, 랜덤하우스코리아, 2012)입니다. 또래압력(peer pressure)이란 유사한 또래(동료) 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은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또래 집단의 수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래압력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캠페인이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은 또래압력이 결속력을 강화시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게 한 긍정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쉬운 책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책마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9월에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AF**

2012 September

Vol.411

P
O
S
T
C
A
R
D



홍보대사 캡틴 구자철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키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9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9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9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9월 30일까지

1.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이 정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96년부터 미 공군에 도입된 무인기로, '악탈자' 라는 별칭을 가진 이것은?
2. '과거로의 여행(a journey into one's past)' 형식을 채용했으며, <트윈 픽스Twin Peaks>, <엘리펀트 맨 The Elephant Man> 등 컬트영화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만든 정통드라마인 이 영화의 제목은?
3. 6·25전쟁 발발 1년 전에 「항공의 경중」 책자를 펴내 한국전쟁에 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 항공전략가는?

7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2. 메리다와 마법의 숲 3. 맥베스

퀴즈 당첨자 경북 영양군 **박현아** ● 전북 익산시 **김주현** ● 서울 성북구 **김형남**
충남 계룡시 **고영욱** ● 경기 용인시 **정찬재** ● 강원 원주시 **박인숙**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대한민국 공군
최인정

공군

신아강

공군

힘내세요!!



Handwritten signature in white ink on the left member's jacket.

Handwritten signature in white ink on the right member's jacket.